

# 변화 혁신 분위기 확산에 날개

## 포천교육청, 2007 포천 교육혁신 경진대회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웅)은 8월2일 혁신사태의 공유로 교육혁신 문화의 정착을 위한 2007 포천 교육혁신 경진대회를 개최 및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서면검토 결과 초등 6팀, 중등 3팀, 고등 3팀, 교육청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인 경진대회에 발표된 사례들은 혁신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례들만 구성되었으며 각 팀 모두 열과 성을 다한 발표로 대회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대회 결과 초등 부분 최우수 이곡초 무한도전(지역체) 박사 만들기 프로젝트,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발하였고 중등 부분 최우수 영중중 웃음꽃이 활짝 핀 즐거운 학교 및 우수팀, 장려팀과

고등부분 포천일고 P1 EUC - Pochon-il High School English UCC Center- 및 우수팀, 장려팀과 교육청부분 최우수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면 교육청이 교육청 다뤄진다 및 우수 1팀, 장려 1팀을 선발하여 8월13일 10시에 본청에서 교육장 표창과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를 발표한 심사위원장인 본청 임용담 학무과장은 심사결과평에서 초등부분 최우수팀인 이곡초 무한도전(지역체) 박사 만들기 프로젝트의 결과로 제29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많은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강평하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포천교육청은 8월2일 혁신사태의 공유로 교육혁신 문화의 정착을 위한 2007 포천 교육혁신 경진대회를 개최 및 결과를 발표했다.

## 포천시,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한다

포천시는 시민에게 제공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찾아서 보상을 주기로 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한 행정서비스현장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시되어나, 행정서비스현장의 인지도가 낮아, 시민의 신고가 거의 없어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우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지원처리 및 공무원의 불친절사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8월부터 월별조사를 통해 보상을 주기로 하였으며 추후 발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방식은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기준에 따라 문화상품권과 사과문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전달하며 보상기준은 포천시 홈페이지의 행정서비스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를 직접 찾아주는 방식과 시 홈페이지의 행정서비스 위반신고계시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서비스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만 기자 form65@paran.com



제27년차 인터랙트지구대회 개최. 국제로터리 3690지구 제27년차 인터랙트지구대회 회기 7월28일~30일(2박 3일간) 강화도 성신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어 포천로터리클럽이 후원하고 있는 동남고 인터랙트회원과 김영주 지도교사가 참석했다.

# 사회지탄 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 포천시, 상근·비상근 인력 문책기준 신설

포천시가 공무원 읍주운전사건 등 공무원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포천시에 따르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읍주운전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정비, 7월 26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5월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읍주운전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시에서 시행중인 문책기준 중 읍주운전 문책기준을 정비해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포천시 소속 상근·비상근 인력에 대한 문책기준을 신설하여 책임감을 고

취시키고 공직사회 내 성실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앞으로 포천시 소속 상근·비상근 인력은 공무원 비위행벌 문책기준에 상응한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주의, 훈계, 해당될 때는 경고, 경징계에 해당될 때는 정직(1개월 이내), 중징계에 해당될 때는 채용해제를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근·비상근 인력이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단하여 청렴도시 1위 포천을 수상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승만 기자 form65@paran.com

# 추천! 한마당 이야기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나는 열 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스무 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마흔 살에도 근심이 있었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 참가

# 중국친구들 짜이찌엔!!

중국에 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중국에 간다고 말하자 모두들의 반응은 한 가지, 중국은 더럽다는 거였다. 모두들 거지인 마당 못살고 더러운 사람들이 모인 낭취급을 했다. 내가 중국에 가기 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제일먼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내버리고 싶었다.

첫날엔 남경공원에 도착해서 4시간동안 차량으로 이동해 밤중에 상산호텔에 도착했다. 두 번째로 중국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비행기에서 친구들도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은 높이 떠 있는 비행기 같이 높이 두둥실 떠 있었다. 화이베이에서 오기까지는 넓은 평야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냥 한적한 기만 하였는데, 시청과 가까워지면서 화려한 건물들이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작년에 같이 홈스테이를 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새로운 친구들과 하는 것이 더 좀 서운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라 더욱 좋기도 하였다.

둘째 날은, 친구들은 만나고 우리 한국 중심의 포천시를 알리는 자국문화경연대회를 하였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선 화관무리는 전통춤 선보이고 태권도 대한 민속의 자긍심을 보여주었다. 준비한 기간이 짧아서 인지 보여줄 것은 없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의 실력을 모두 뽐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파트너 티엔루를 만나서 내 집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동안 머무르게 될 집에 왔다. 그냥 평범한 집에서 외동딸로 자라서 부모님들도 좋은 신분이었다. 내가 와서 비싼 요리를 해주었지만, 중국음식이 아직 입에 안 맞은 터라 많이 먹지는 못하였다.

그리고는 다음 일정으로 서원중



한복을 입고 중국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연수 학생명예기자.

친구들의 화합을 위한 친목계임을 하였다. 더운 날씨 속에서 피구도 하고 축구도 하면서 지고, 이기는 게임을 통해 서로가 응원해주면서 힘이 되어 주고, 더 재미있고 남다른 느낌을 느꼈던 것 같다. 난 더 의욕을 부려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MVP 우의상도 3개씩이나 받고 기분이 더 좋아졌다. 일정을 마치고 서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도 하였다. 수영장에 가기로 하였는데, 많은 의견이 반발하여 그냥 화이베이를 구경한 뒤 쇼핑을 했다.

마지막 일정이 넷째 날은, 중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중국 문화체험을 했다. 전통악기를 듣고, 그 악기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싶었다. 집종하기도 하였다. 호로 구라는 악기는 마치 한국의 가야금 같이 생겨서 조금은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피리도 불어보고 난 뒤 그 다음에는 한국의 서예를 배워보기도 하고 내 이름을 써서 중국친구들에게 전해 주기도 하고 전해 받기도 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차이라는 틀에서 많이 벗어나게 한 활동인 것 같아 좋았다.

그렇듯 중국친구들과는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이 느껴졌고, 중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나의 파트너인 티엔루와 일정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길거리의 경적 소리를 듣기 일쑤이다. 중앙선은 중심으로 신호를 지키라는 중심의 선인데 그것을 마치 한 줄로 이어가 신호도 지키지 않았다. 커다란 경적소리에 마음까지 흔들렸고 나의 입맛이 맞지 않았던 음식처럼 아직 내가 중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았다.

옛날에만 있을 법한 중국의 칸막이 없는 화장실은 나를 더 이해시키기엔 경악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나라간의 문화는 충돌하고 엇갈리는 것 같았다. 내 친구들이 말했듯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자부심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애저는 날까지 친구들과 함께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끝내 눈물로 그리워했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듯이 인생의 한 부분에 있어서 내 순간 순간을 집적은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만났던, 나에게 잘 대해주던 친구들 모두 다시 만날 그 날을 그리며 모두 짜이찌엔!!!!



김연수 학생명예기자

## 시인의窓

### 별

오영수(양주문인협회회장)

아름다운 사람은 죽을 적마다 밤하늘의 별들도 하나씩 지나 보나

바람만 불어도 쏟아질 듯 많았던 별들을 요즘은 통 볼 수가 없다

하늘의 별들은 저리 죽어 가는데

땅에서는 불야성이 늘어만 간다

〈감상노트〉  
항상 별은 별로 있을 때 찬란한 높이의 광채를 발한다. 별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고 다만 스스로 소멸해 갈 뿐이다. 별은 인간의 가슴에서 나는 새다. 사람이 희망하는 위대한 불사조(Phoenix)다. 별은 인간의 마음에서

피는 물결이다. 그러므로 별은 인간의 아름다운 꽃이며 열매다. 하물며 사람은 어찌 신에 맡겨 정대로 별을 따라 하는가. 그러다 진정한 인간의 별이란 하늘에 있지 않고 문명 인간의 대지에 있을 거다. 안 익 수(시인)

## \*용경자의 세상읽기 13

### 친정 나들이

기쁜 반세위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많은 형제를 낳아 잘 키우시고 짝을 지어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오래 우리 곁을 지켜 달라고 말하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 표현이 어색해서 "엄마! 왜 이렇게 아픈데도 내 모음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 본다.

40년 넘게 나를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 삶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바쁘게 달리기만 했던 이기주의자였다. 가끔은 뒤도 돌아보고 아래도 내려다보며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할텐데...

다음날 어머니가 끊어주신 미역국으로 해장을 하고 말한 잔을 한 보따리 차에 실었다. 다음 모임에 꼭 오라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배움을 받으며 고속도로를 뚫고 달려 국도를 달려 내 삶의 터전인 포천으로 향했다.



김윤경 의정부문예기자

## 자유기고 나를 불사르는 봉사 현장에서

### 만남 손병락씨

여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름하여 손병락 시민안전봉사대 대장이다.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인생은 리듬과 함께 다스리는 인생을 두 배로 사는 모습이 있다. 그 사람의 컬러와 향기를 포천시민 전체의 자산이다. 3739부대 1기갑여단 앞을 지나가다 스나카 비쳐들 쏟아지는 밤, 대원들의 빠른 대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차량 문을 부수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엄청난 사고에 피투성이가 된 환자는 앰블런스에 실려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진정한 봉사자 손병락씨는 시간을 이끄는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모범적인 봉사자다. 하루는 24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가치를 얻고 사는 인생 신체화, 정신적,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진정한 봉사자다. 지역을 따라 공동체의식이 전개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대한의 시간활용,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여유로운 환경은 결코 아니면서 의제21실천협의회, 의용소방대, 시민안전봉사회, 가는 곳마다 손병락 대장의 활약은 대단하다. 봉사란 딱히 정해진 유형은 없지만 이것저것도 아닌 그냥 이름만 봉사자란 일반적인 유형의 사람과는 달리 나를 불사르는 성격, 능력이 있는 생명꽃의 수호천사다. 각 단체의 꽃은일은 도맡아 하고 밤, 낮 가리지 않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 손병락씨는 포천시민의 자랑스러운 자원이며 보배다. 살며 사랑하며 행복의 갈채를 보내고 싶다.

포천시민안전봉사대 손병락 대장이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있다.

## 자유기고 1980년 5월 18일, 작전명 화려한 휴가

친구 세 명에서 개봉 일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왔다. '화려한 휴가'는 내가 나고 자란 곳 광주에서, 내가 태어난 이듬해인 1980년 짧았던 봄의 이야기다.

광주에 사는 택시기사 민우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꿈쩍이 아가는 동생 진우와 단둘이 사는 그는 오직 진우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진우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간호사 신애를 맘에 두고 사춘기 소년같은 구애를 펼치는 그는 소심한 성격이다. 이렇게 작은 사랑을 즐기는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

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무고한 시민들이 총, 칼로 무장한 시위대 진압군에게 총격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한다. 눈앞에서 억울하게 죽은 친구, 애인, 가족을 잃은 그들은 최정준 출신 홍수를 중심으로 시민군을 결성해 결말이 흰히 보이는 열혈간의 사투를 시작한다.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었던 특전사들도 작전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이기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역사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들이 즐겁고 유쾌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기에 참 많이 웃었다. 마지막 대사인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재발 및 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재발 및 지 말아주세요"와 죽은 자의 웃음과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그린 마지막 장면인 피의 결혼식은 인상적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상복으로 입어야 했던 신애는 복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망각을 슬퍼하는 듯 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기념일이 다가오며 뉴스 속 오열하는 그들을 봐도 요즘 세대들에게는 별 느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들이 평생 지니고 사는 '살아남은 아픔'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월의 아픔을 간직한 광주에서 자란 탓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상대하는 직업 탓인지 조금이라도 그들이 잊혀지기 전에 역사의 101일을 보여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참 고맙다.



김윤경 의정부문예기자